누가-행전 강의안 1 (대신대학교 신학과 B.A. 과정) 강사명: 김규섭

누가복음 서론적 소개

* 1. 강의의 주제

|  |  |
| --- | --- |
| 누가복음 6:20-26 | 마태복음 5:1-12 |
| 20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21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22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4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6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

본 강의의 주제는 “누가복음-사도행전”이다. 이번 학기 강의의 전반부는 누가복음을 다룰 것이며, 우리는 4 복음서의 통일성이 뿐 아니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므로 본 강의는 일반적 측면에서 예수님의 삶과 교훈에 대한 강의라기 보다는, “누가복음”의 특성과 신학에 대한 강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교훈에 대한 역사인 4권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복음의 신학적 독특성과 차별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타티안이 저술한 디아테사론 (4복음서를 통합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든 책. AD 172경에 저술됨)적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4복음서를 한데 섞어서 혼합해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로서 4복음서가 주어진 이유가 퇴색될 것이다. 왜 하나의 복음서가 아닌 4개의 복음서가 주어졌는가? 각 복음서들은 각자의 존재 이유를 가진다. 각 복음서는 각자의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저술되었으며, 이러한 각 복음서의 다양한 의도와 신학을 찾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각 복음서의 극명한 차이점을 드러내는 자료로서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와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를 비교해보자 (위의 표를 보라).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강론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복에 대한 전통이 여러 버전으로 남아 있고, 마태와 누가는 각기 다른 전통을 선택했을 거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차이점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과 다양성을 드러내 수 있다는 것이다.본 강의는 누가복음의 독특성과 그 독특성이 기인한 역사적 상황과 복음서의 목적을 생각해볼 것이다.

* 1. 누가복음의 자료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했을까?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떤 자료를 사용했을까? 이 문제는 공관복음서문제 (the synoptic problem)라고 불리우며, 수많은 학자들이 지난 세기에 격렬한 토론을 벌였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지난 세기의 토론에 따라, 학자들은 두 가지 합의점에 도달했다. 이 합의점은 다음과 같이 거칠게 표현될 수 있다.

1. 공관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이다.
2.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참조하였으며, 마가복음에 나타나지 않은 공통자료도 사용했는데, 이 공통자료는 현재는 소실되었으며, Q라고 부른다.

물론 모든 학자들이 이러한 합의점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의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William Farmer). 어떤 학자는 원누가복음 (proto-Luke)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믿는다 (Thomas Brodie). 어떤 학자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참조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아니라, 원마가복음 (Ur-Mark 혹은 proto-Mark)이라고 말한다 (Chang-Wook Jung). 어떤 학자들은 Q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Mark Goodacre). 공관복음서문제는 본 강의에서 다루어질 범위를 넘어서며, 이에 관해서는 공관복음서 수업 시간 가운데 다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다만 본 강의는 현재의 합의점에 따라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전제할 것이다. 다만 Q의 존재와 특징과 Q를 저술한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본 강의 범위를 넘어서며, 실은 Q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Q’의 존재와 신학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이며, 누가복음의 자료 배열과 선택에 있어서 저자 누가의 의중과 신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공관복음과 비교하여 누가복음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표현들, 동기들, 특징들은 누가의 의도를 반영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 강의는 이러한 차이점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누가가 자료들을 조작하거나 임의로 이야기를 지어냈다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누가에게는 복수의 자료들 (구전 자료와 기록된 자료 둘 다 포함하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누가는 같은 이야기를 담은 여러 자료들 중에서 자신의 의도에 적합한 자료를 선택하여 배열할 수 있었을 것이다 (I. Howard Marshall). 우리는 누가가 신실한 역사가였으며. 전승의 신실한 보존자였다고 전제할 것이다.

* 1. 누가복음의 저자 및 연대

누가복음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누가로 알려져 왔다. 누가복음 본문에는 저자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 거명 혹은 암시가 주어져있지 않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저자는 내적증거가 아닌 외적 증거에 따라 추론할 수 밖에 없다. 누가복음의 제목 (Τὸ κατὰ Λουκᾶν εὐαγγέλιον)이 붙어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은 P75(AD 175-225경)이다. 주후 2세기 말에 쓰여진 여러 저자들이 누가복음의 저자를 누가로 지칭한다. 예를 들어, 이레니우스는 그의 저작 ‘이단논박’에서 바울이 협력자였던 누가복음을 저술했다고 주장한다. 2세기 후반에 저술된 신약정경모음집의 누가복음 서론에서 의사였으며,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저술했다고 증언한다 (예를 들어 무라토리안 정경). 2세기 후반 오리겐과 3세기 초반 터툴리안도 그들의 저술에서 누가복음은 바울의 협력자였던 누가가 저술했다고 증언한다. 누가복음 자체로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즉, 내적증거)는 본인이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이다. 사도행전 중반에 나타나는 “우리” 단락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울 선교팀의 일원이라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에서 제외하도록 하자.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상당히 세련되고 숙련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마가복음의 거친 표현들이 누가복음에서는 세련되게 다듬어진 여러 예들이 존대한다. 누가-행전에 나타나는 의학적 표현들이 저자가 의사라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Hobart), LXX, 필로, 요세푸스 그리고 여러 그레코로만 문헌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의학적 수준은 의사가 아니더라도 사용될 수 있었다 (Cadbury). 그러므로 저자가 의사였다는 것은 본문을 통하여 추론되기 어렵다. 누가가 복음서를 썼다는 것은 복으서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다만 누가에게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복음서와 사도들의 증언에 대한 저작권이 돌려졌다면, 이것은 유의미하다. 왜나하면, 누가는 초대교회에서 비중있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복음서의 저자로 거명하고자 한다면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인물 (예를 들어 바나바, 바울, 브리스길라 등)을 저자로 지칭하는 것이 문헌의 권위를 위하여 유리하지 않았을까? 유명하지 않은 누가를 저자로 지칭하는 것은 이러한 전통이 신빙성이 있다는 하나의 외적 방증이 될 수 있으며, 누가를 저자로 지칭하는 2세기 후반의 전통 (외적 증거)와도 일치한다. “만일 저자의 이름을 통해서 그 작품에 권위가 주어진다는 생각이었다면, 훨씬 더 중요하고 뛰어난 바울의 동료들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누가를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예르벨, 사도행전 신학, p.30).” 그러므로 본 강의는 전통적 이해에 따라서 바울의 협력자였던 누가를 저자로 전제할 것이다 (참조 골 4:11-14 (“사랑받는 의사 누가”; 몬 24 (“나의 동역자…누가”); 딤후 4: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행 13:1 (“구레뇨의 루기오”); 롬 16:21 (“나의 친척 루기오)).

* 1. 누가복음의 의도된 독자와 목적

누가는 누구를 위하여 누가복음을 저술하였는가? 이 질문은 누가복음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저술되었다고 믿거나 (대부분의 학자들), 혹은 God-fearer를 위하여 저술되었다 (John Nolland)고 믿었다. 누가복음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저술되었다는 근거로는 히브리어식 표현이나 지명을 헬라어식 표현이나 지명을 누가가 바꾸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예를 들어서, “랍비”라는 히브리어식 표현은 퀴리오스나 에피스타테스와 같은 헬라어식 표현으로 바뀐다. 골고다라는 히브리어식 지명은 크라니온 (해골)이라는 헬라어식 표현으로 변경된다. 누가복음이 선교적 관심이 있으며,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관심은 아브라함이 아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도 발견된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구약 인용을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LXX에서부터 인용한다. 그리고 누가가 유대(Ἰουδαία)라는 용어를 팔레스타인 전체에 적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또한 비평이 필요하다.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저술가 필로 (Philo of Alexandria)를 생각해 보자. 필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으며, 히브리어를 알지 못했다. 그는 히브리어성경이 아닌 LXX에서 구약을 인용하며, 히브리어식 표현이 익숙하지 못했다. 우리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히브리어에 능통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누가복음이 유대지명과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못한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라면 누가복음이 히브리어식 표현과 지명을 헬라어식 표현과 지명으로 변경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유대라는 지명의 의미와 범위도 유대문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누가복음은 말할 나위없이 선교적 관심을 지닌다. 하지만 고대 유대교도 사실은 선교적 종교였으며,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선교적 사명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사도행전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 열방 가운데서 실현된다는 구약-유대교와의 연속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선교가 강조되고 있다고 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이 저술되었다고 가정될 필요가 없다. 아담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아담을 족보 처음에 거명한 것이 누가복음의 보편적 관심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아담은 고대 유대문헌에서 유대인들의 대표로 나타난다. 반면, 우리가 누가복음이 유대인 (유대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저술된 것이라고 가정하다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난점들이 여러가지로 해결된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들을 상당부분 제거한다. 이것은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가 바리새인들과 연관된 유대인들임을 암시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에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유대백성을 가리키며, 바울 서신 처럼 유대와 이방 그리스도인들 둘다를 포괄하지 않는다 (Jacob Jervell). 세 번째로 정결법을 부정하는 대조법 (예를 들아 마 5:21-48에서 예수님의 대조법을 보라)이 생략되어 있다. 정결법에 대한 부정적 언급과 새로운 해석이 생략된 이유는 정결법과 연관이 있던 유대인 독자들에게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서 일 수 있다. 왜냐면 누가의 관심은 바울처럼 논쟁적 상황에서 누군가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공통 지점을 발견하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누가복음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쓰여져 있지만,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예루살렘의 지리적 중요성이 여전히 중요한 유대그리스도인들을 고려하여,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 것이 아닐까? 다섯 번째로 눅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임을 강조하는 장면들 (장자 언급, 성전 방문, 할례 등)은 독자들이 유대인임을 고려한 결과 일 수 있다. 여섯 번째로 눅-행에서 “형제”라는 언어는 언제나 유대-인종적 함의를 지니며, 이것은 바울 서신의 용례와 다르다. 유대인들이 언제나 형제라고 서로 부르며, 이방인들이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독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일 수 있다. 여섯 번째로 누가복음은 바리새인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최대한 삼가한다. 이것은 바리새적 뿌리를 가진 유대인 독자들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 일곱 번째로 누가가 그리스도교 운동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당파 혹은 파 (αἵρεσις; 행 24:5, 14; 28:22)은 요세푸스에서 유대교 내부 분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엣세네파)를 언급할 때 사용한 단어이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리스도교 운동이 여전히 유대교 내부 운동 중 하나였으며, 유대교와의 논리적 계속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언급한다. 그러므로 본 강사는 누가-행전의 의도된 독자들이 유대인 (유대그리스도인)이었다고 주장한다. 누가-행전은 유대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저술된 것이다. 누가-행전은 구약에서 예언된 약속의 실현이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유대그리스도인들에게 변증 (혹은 교육)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누가의 방법은 유대교와의 공통분모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진정한 실현이라는 점을 말하면서, 구약성경의 영광스러운 약속과 선교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 약속과 책임이 그리스도교에서 실현되었음을 보여준다. 누가복음의 목적은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소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반셈주의) 오히려 그들과 공통분모를 만들며, 변증하고, 그들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교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곧 누가복음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개념은 상징적 중요성을 지니며, 본 강의에서 이 점이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다.